

제 27 호

대한속기협회소식

<http://www.steno.or.kr>



이사장 신년사

회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사장 안기철입니다.

2018년이 열렸습니다. 먼저 새해 인사 올립니다.
회원님 여러분 모두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7년 우리 협회는 새 임원진과 집행부가 출범하였습니다. 집행부로서는 기초를 다지기 위한 노력을 우선으로 하여 회원 유대 강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속기사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건의, 속기학술세미나 개최, 인터스테노 베를린 총회 참가 및 경기대회 은메달 획득, 스마트속기협회의 속기역사관 개관에 따른 자료 제공, 한글속기무료강습 지원 등 소기의 회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지난해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사회 전체가 유례없는 격동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가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회적 어젠다가 해결되지 못한 채 상존해 있는 듯합니다. 우리 협회 또한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협회 소재지나 공직 겸직 관련한 문제, 지속적 일자리 창출 문제, 인공지능 관련한 문제, 속기학과 지원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집행부는 물론 회원님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이 절실한 과제들입니다.

이즈음은 새롭게 다잡는 한 해 계획을 시작하는 때입니다. 계속되는 차가운 날씨가 방해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이라면 좀 추운 날도 있어야지요. 곧 따뜻한 봄이 오고 새싹이 돋을 겁니다. 어떤 결실을 맺을지 소망과 기대는 조용히 가슴속에 품어두고 각자가 조심스레 싹을 틔워야 되겠지요. 집행부는 역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안기철

이사회 소식



■ 제229차 이사회는 2017년 3월 22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의 경과보고를 듣고 ● 부의안건 제1항 집행부 구성의 건을 상정하여 안기철 이사장으로부터 임기 만료 이사진 교체에 따른 새로운 집행부 구성 및 부서장 선임과 관련한 설명을 들은 후 이사장의 복안 및 협회의 관례대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과 조정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는 후 각 부서별로 2017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와 예산(안) 조정에 따른 보고가 있었고, 정상덕 이사로부터 속기사 현황에 CAS 속기사 직원 수, 프리랜서도 포함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학원 홈페이지에 대한속기협회 사이트로의 바로가기 링크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후 2017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조정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 제230회 이사회는 2018년 1월 8일에 개최되어 ● 총무이사 경과보고를 듣고 하반기 사업완료 부서 보고를 받고 ● 부의안건 제1항 제51회 정기총회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이사장으로부터 총회 개최 일시·장소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기총회에 여러 지역의 속기사들이 두루두루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달라는 이사님들의 당부말씀이 있었고, 제51회 정기총회를 2018년 1월 24일(수) 18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부의안건 제2항 2017년도 결산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17년도 결산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정란 감사로부터 결산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보고가 있었고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당부말씀이 있었습니다. 2016년도 결산서는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3항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관한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2018년도 예산(안)과 사업계획에 대한 개요 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국내에서 개최되는 한글속기경기대회 일정을 앞당겨 국제속기경기대회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김덕진 이사님의 말씀이 있었고 또한 국제속기경기대회 준비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시스템을 제안하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4항 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총무이사로부터 임원 선임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이 있는 후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논의 후 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이주성 신임 회장 추대 승인되었습니다. ● 부의안건 제5항 기타 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2017년도 사업결과 보고

제25회 한글속기학술세미나가 컨싱턴리조트(경기도 소재)에서 5월 19일부터 20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개최되었습니다. 국회, 지방의회, 복지대, 한국스텐노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총 148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권영진 국회의사무처 의사국장의 '국회의 회의 운영', 김경묵 성균관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의 '4차 산업혁명과 창의성' 주제발표를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개최된 2017년 제51차 INTERSTENO CONGRESS에는 20개국, 500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본 협회에서는 총 13명의 회원이 참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의회 속기시스템 홍보와 2018평창 동계올림픽을 홍보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23일부터 24일 양일에 걸쳐 열린 리얼타임 스피치 캡처링에 참가한 협회팀은 김봉철 회원이 2위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홍보부에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협회 소식을 홍보 및 안내해 오고 있으며 제53호 속기계(2017년도판)와 소식지 제26호를 제작 및 발송하였습니다.

한글속기무료강습은 안정근 컴퓨터속기학원에서 12월 11일부터 21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참가인원은 40명이었습니다.



자격심사위원회에서는 제25회 전국한글속기경기대회를 5월 12일 국회 의정관 전산교육장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준결선 통과자 30명과 국회 예선 통과자 5명, 총 35명이 참가하여 실력을 겨룬 결과 이보람·김천웅·김재일·김소라 씨가 인터스텐노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협회 새소식



01 한글박물관 기증품 인터뷰

대한속기협회에서는 국립한글박물관이 발간한 기증자료집 ‘한글, 함께 걷다’에 참여하였습니다. 8월 16일 안기철 이사장을 비롯한 김덕진 이사, 이동준 총무이사, 이규진 홍보이사가 인터뷰를 진행하여 2011년 한글박물관에 기증한 한글속기 관련 자료에 관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기증을 하게 된 경위, 헤까닥부터 스마트카스까지 카스 기계의 변천사, 속기교본 등에 대한 설명, 협회 역사 설명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03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 실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 120명을 대상으로 지방의회 속기실무자과정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02 속기역사관 개관

12월 12일 속기역사관이 개관하였습니다. 한글속기 발표 108주년 및 1946년 12월 12일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서 최초로 속기책을 작성한 7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2월 12일에 맞춰 개관하였습니다. 대한속기협회에서는 이날 ‘남조선과도입법의원속기책’을 두 권 기증함으로써 그 뜻을 더하였습니다.



04 일본의회 방문

안기철 이사장과 이동준 총무이사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일본의회에 다녀왔습니다. 동경에 위치한 중의원과 국립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회의록 보존 및 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일본 국회회의록 DB 시스템 구축 현황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국회의 새로운 가족이 된
신입 직원들에게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시간

국회 새내기들에게 묻다! 10문 10답



양진혁

1

당신을 한 단어로 정의한다면?

‘긍정’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매사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친구들에게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을 자주 듣기 때문입니다.

2

특별한 취미나 관심사가 있다면?

공부를 시작하면서 생긴 취미로 하루의 시작과 끝에 웹툰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게임방송이나 스포츠(해외축구, NBA)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3

내 인생에 가장 영향을 끼쳤던 것은?
(사람, 물건, 사건 등등)

16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부터 대학교를 거의 졸업할 때까지 강아지와 함께 지내면서 제 성격 등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4

속기와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 전공을 행정학과로 선택할 만큼 공무원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공무원을 하고자 했었는데, 여러 직렬을 알아보던 중 속기 직 공무원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본격적으로 속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

국회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일?

2016년 최종면접까지 갔다가 합격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다시 1년을 준비한다고 붙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항상 들었습니다. 이러한 걱정들로 인한 불안감과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그 과정들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6

국회 합격 소감은?

약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보상을 받은 것 같아서, 또 한 번의 실패를 극복하고 얻은 결과물이라서 그런지 정말 기쁘고 가족들과 친구들, 친척들이 축하를 해 줘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7

첫 월급을 받고 한 일은?

가족들과 간단하게 외식을 했고 부모님께 선물을 사 드렸습니다.

8

입사 1년 안에 해 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가서 여러 곳을 구경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습니다.

9

10년 후의 나의 모습은?

10년 차 국회 속기사, 40대…… 결혼 6년 차(희망) 등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10

앞으로의 다짐과 각오를 밝혀 주세요!

일을 배우기 시작한 지 이제 한 달이 조금 넘었습니다. 아직 많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선배님들이 하시는 것들을 열심히 보고 배워서 의정기록과의 일원으로서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정채이



최은혜

<p>1 어떤 환경에서나 잘 적응하는 ‘스펀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p>	<p>‘풀’입니다. 여기저기 흔하게 있고 평범하지만 그래도 한번 뿌리내리면 잘 버티고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p>
<p>2 귀여운 캐릭터로 된 인형이나 피규어 등을 모으는 것을 좋아합니다.</p>	<p>식물 모으기입니다. 친구 어머니가 키우시는 화분에 뭐가 있는지가 주 관심사입니다.</p>
<p>3 가장 힘들었을 때 우리 집에 와서 많은 위로와 힘이 되어 준 강아지가 저의 인생에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p>	<p>대학 시절입니다. 학교 선생님들, 동기들로부터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항상 가던 곳만 가고 아는 것만 알던 제 세계를 여러 모로 확장시켜 준 때였던 것 같습니다.</p>
<p>4 대학을 다니는 도중 우연찮게 속기사라는 직업을 보게 되었고 관심을 가지고 알아보니 생각보다 더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 본격적으로 배우게 되었습니다.</p>	<p>어느 여름 인터넷으로 본 한 국조특위 중계였습니다. 카메라 앞으로 지나다니던 사람들에 관심을 가지면서부터입니다.</p>
<p>5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p>	<p>문득문득 아득함과 막연함이 닥쳐오는 때입니다. 밥상도 슬프고 친구들 문자도 슬프고 주변의 별의별 일이 다 슬퍼지는 이상한 순간들을 견디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p>
<p>6 수험 기간 동안 정말 꿈꾸던 곳에서 일을 하게 된다고 생각하니 너무 설렘고 마음의 짐을 하나 덜 기분입니다.</p>	<p>수험은 힘들었지만 그 기간은 나 자신과 내 주변의 역사를 들여다보고 정리되는 계기였습니다. 합격은 그 과정 끝에서 주변 사람들의 믿음을 새삼 확인받는 순간이었고 정말 감사했습니다.</p>
<p>7 친구들에게 밥을 사주었고 가족들에게는 그동안 받은 것이 많아서 작은 선물을 해 드렸습니다.</p>	<p>주변에 신세진 분들에게 보답하느라 한 열흘 만에 다 썼던 것 같습니다.</p>
<p>8 운동을 배워서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하고 싶습니다.</p>	<p>운전면허 자격증을 따는 것입니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 결실하게 듭니다.</p>
<p>9 결혼을 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p>	<p>저는 평소 너무 먼 미래의 목표를 잡지 말자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주무님처럼 후배들에게 좋은 선배가 되는 것입니다.</p>
<p>10 아직 제 자신이 많이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항상 노력하고 배우는 자세로 모든 일에 임하겠습니다!</p>	<p>사명감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하는 속기사가 되도록,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는 후배가 되도록 늘 애쓰겠습니다.</p>

회원동정



승진

안기철(국회사무처)(2017. 8. 2.)

과장 → 의정기록심의관

김덕진·정순화(국회사무처)(2017. 8. 7.)

서기관 → 과장

이동준·한기수(국회사무처)(2017. 8. 7.)

속기사무관 → 서기관

이미정·백순정·이봉선(국회사무처)(2017. 8. 7.)

속기주사 → 속기사무관

입사

양진혁·최은혜·정채이(국회사무처)(2017. 11. 6.)

공지사항



● 회원가입 안내

회원가입 신청을 하지 않은 분들께서는 입회원서와 함께 가입비 1만 원, 연회비 2만 원, 사진 2매를 총무부로 보내 주시거나 총회 참석 시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비납부 안내

우리 협회는 회비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협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기대합니다.

▶ 회비납부 : 301-0160-1418-81 농협 대한속기협회

연락처	총무부	권오정(총무부장) 010-5148-4156
		지성숙(재정부장) 010-8377-4962

● 변경된 근무처나 주소는 즉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회원부	조미래(회원부장) 010-9330-0194
	홍보부	기자영(홍보부장) 010-5508-9423

● 대한속기협회 홈페이지 주소는 www.steno.or.kr 입니다.

자주자주 들러 주시고 관심도 가져 주세요.

● 홍보부에서는 속기계(54호)에 실을 원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용 : 사진, 연구논문, 속기 실무, 수필, 회상기, 시, 기타 제언 등 그리고 원하시면 광고도 실어 드립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홍보부장 기자영(☎ 010-5508-9423)에게 연락 주세요.

